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6호 (2002 여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사색을 위한 인용

사 람 들

신 경 속

여름에.

열명길. 죽음의 한 연구를 쓴 소설가 박상룡 선생이 캐나다에서 근 이십 년 만에 귀국 했었다. 출판사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찌어찌해서 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올해 만해문학상을 받은 관촌수필, 해벽, 우리 동네, 매월당 김시습을 쓴 소설가 이문구 선생으로부터 가슴 찡한 얘기를 들었다.

두 분의 우정은 문단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으나, 나는 까마득한 아랫사람이라 그런가보다. 하던 차였다. 박상룡 선생이 이십 년 전에 이 땅을 떠나면서 라면상자 한 박스 분량의 원고를 이문구 선생에게 맡겨놓고 떠나셨다 한다. 이문구 선생은 친구가 맡겨놓고 간 라면박스 안의 원고를 이삿짐 속에 싣고 다니며 몇 년을 지냈다 한다. 언젠가는 친구 박상룡이 캐나다에서 돌아와 살펴줄 것을 기대하며.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의 박상룡 선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은 맡겨놓은 원고를 불태워달라는 것이었다 한다. 이문구 선생은 원고를 불태워달라는 박상룡 선생의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나 박상룡 선생의 대답은 같았다고 했다. 행여 이문구 선생이 원고를 남겨놓을까봐 아주 간곡하게 불태워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했다고 했다. 그 부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 이문구 선생으로서는 더이상 그 원고를 맡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한다. 친구의 소중한 원고를 아궁이불에 태우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러다가 이문구 선생은 박상룡이 이럴진대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 박상룡 선생의 원고와 함께 같이 끌고 다니던 선생의 쌓아놓은 원고 5천 장가량을 같이 태웠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저절로 무릎이 끓어졌다. 불타버린 원고이니 무슨 내용인지 는 모르겠지만, 토막원고까지 다 끌어모아 책으로 출판을 하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로서는 당연한 충격이었다.

『한글서예』『한글서예』『한글서예』

한글서예는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 분야로, 한글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 등을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한글서예는 한글의 창제자인 헌종과 그 외 다른 왕조의 왕들이 한글을 창제하거나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글의 문학적 가치를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한글서예는 한글의 창제자인 헌종과 그 외 다른 왕조의 왕들이 한글을 창제하거나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글의 문학적 가치를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한글서예는 한글의 창제자인 헌종과 그 외 다른 왕조의 왕들이 한글을 창제하거나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글의 문학적 가치를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한글서예는 한글의 창제자인 헌종과 그 외 다른 왕조의 왕들이 한글을 창제하거나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글의 문학적 가치를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한글서예는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 분야로, 한글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 등을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한글서예는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 분야로, 한글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 등을 조망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철학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한빈

어떻게 하다보니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남들보다 좀 일찍 갖게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공 공부가 그리 깊지 않는 내가 대학에서 맡은 첫 강의는 <철학의 이해>였다. 과거에는 교양 필수과목이었던 <철학개론>이 교양 선택이 되면서 과목명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몇 년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며 깨달은 바가 많았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어쩌면 그 사정을 잘 드러내는 말일 것 같다. 일단 남들 앞에서 철학을 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철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어떤 방면에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지식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철학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철학의 이해라는 과목은 내겐 점점 더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이 되어갔다. 차라리 좀더 전문적인 내용을 전공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좀더 쉬우리라 생각도 해 보았다. 인생의 경험도, 풍부한 교양도 갖지 못한 내게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눈초리는 귀신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스스로 진지하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실존적으로 질문해 보는 계기를 가져다 준 면도 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늘 강조해온 것이 있다. 누구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늠해 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한 나 자신은 정작 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이 한 사람의 철학자가 아니던가.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너는 왜 철학을 하는가. 널 그렇게 못 견디게 하는 문제 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내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철학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고 하면 그 만큼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에 말이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왜 철학을 해야 하는가에 그 해답이 놓여 있다고 본다. 모두에게 철학은 중요하고 하고 그래서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이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것이 내 결론이다.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부쩍 스승님들을 추억해 본다. 그리고 보니 여태 여러 스승님과 선배님들이 철학이란 것을 통해 내게 주신 가르침도 결국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금년에도 난 철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예전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철학의 본질, 혹은 철학의 목적을 첫 시간부터 제시(6쪽에서 계속)

국내외 우수대학을 소개합니다



한국 대학

20대를 넘어서는 학생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때부터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대학은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국어·영어·수학·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당시 기억나는 것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故 조요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때이다. 대학원에서 플로티노스의 (enneads)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수업방식은 선생님이 영어를 한 페이지씩 읽고 헬리어와 비교하면서 그 철학적 의미를 묻고 답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 나는 것은 그분의 영어발음이 완벽한 독일식 영어발음(독일식은 영어단어를 쓴 그대로 읽는 것을 말한다)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잘 아는 이유는, 내가 독문과 출신이어서 나 역시 독일식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분을 이어받아(!) 완벽하게 독일식 영어를 구사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분이 바로 환석환 교수님이시다. 학부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한교수님에게 들었던 나는 대학원에서 조요한 교수님의 영어발음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 갑자기 한석환 교수님이 떠 올랐다. 그 분의 영어발음이 조요한 교수님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 당시 조교수님은 은퇴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수업을 준비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늘 온화한 웃음을 보면서 참된 철학자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 이제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안에 행복하게 거하실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지금은 아련하다.

갑자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다보니 제독에 걸맞는 철학적 단상이 없이 철학과의 회고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학적 언급을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한 통찰이 떠오른다. 그의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다.

“또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 과거지사의 현재, 현재지사의 현재, 미래지사의 현재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지사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지사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지사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 내 안에 있고, 미래 역시 내 안에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내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 나의 과거는 지금 나를 구성하는 나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미래는 내가 앞으로 가질 꿈과 비전의 기대로 나의 영혼에 축적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내 안에서 공존한다. 지금 내가 되돌아보는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지만, 그 안에는 쓰라린 기억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존재한다. 그 모든 과거가 지금 나의 영혼에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는 늘 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미래지사의 현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늘 희망적이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산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바로 비전과 꿈일 것이다. 이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나 조직은 이

百이야기. (약 12,000쪽)



국내외에서 각국의 철학을 주제로 한 책들이 대거 출판되었고, 그 중에서도 김경환은 그야말로 대작이다. 그 책은 전문가들에게는 학술적 가치가 높았지만, 일반인에게는 접근성이 어렵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한 경향이 있다. 특히 그 책은 서구 철학의 전통과 동양 철학의 전통을 비교하는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책의 내용과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고 있다.

한국 철학의 전통 / 동양 철학의 전통 / 서구 철학의 전통

◇ 서지 출판을 놓으면서

한국 철학의 전통은 그 자체로도 매우 풍요로운 학문 분야이며,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에는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책은 서구 철학의 전통과 동양 철학의 전통을 비교하는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책의 내용과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고 있다.

한국 철학의 전통은 그 자체로도 매우 풍요로운 학문 분야이며,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에는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책은 서구 철학의 전통과 동양 철학의 전통을 비교하는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책의 내용과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고 있다.

한국 철학의 전통은 그 자체로도 매우 풍요로운 학문 분야이며,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에는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책은 서구 철학의 전통과 동양 철학의 전통을 비교하는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책의 내용과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고 있다.

(4) 철학의 전통을 소개하는 책들
한국 철학의 전통을 소개하는 책들은 대체로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나 학술 저서로, 그 내용은 주로 전통적인 철학의 주제와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내가 그를 만남 || [4] ||

여러 만남을 기억하며



한 상화

승실대 철학과 동문 소식지에 실을 글을 부탁 받고, 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이미 아련한 과거로 흘러가 버린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 대한 나의 기억은 온통 방황과 회의와 좌절과 고민..... 그리고 외로움... 등으로 이어진다. 80년도는 광주사태로 한 학기 거의 전부를 휴강했고 그 후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나는 거의 흥일점 신세였다. 중간에 잠깐 어떤 언니 한 분이 함께 공부했던 걸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 언니는 잘 있을까? 죄송하다. 성함도 기억 못해내다니. 또 한 가지 인상에 남는 것은 4학년 때쯤이 었나? 4명이 함께 모여 그룹 스터디 한 기억이다. 그 때 아마 Heidegger의 『존재와 시간』을 읽었었지. 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낙웅, 김재웅, 정세근, 최기표 등인데 그 형들과 친구들은 잘 있는지? 또 기억에 나는 동문들은 나홍주, 정기철, 김한요 또 아~ 여석이 형... 그 외에도 얼굴은 떠오르지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도 몇 있다. 아! 그리고 선숙이 형도 있다. 합창단을 같이 해서 대화도 곧 잘 나누었는데 소식지에서 근황을 본 것 같다. 아무튼 모두들 만난다면 반가울 것 같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얼굴에 웃음이 떠오른다.

그 때 우리 철학과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순수 철학파와 신학하기 전에 철학을 하려고 들어 온 사람들. 소위 목사 지망생들이었다. 그 때 그랬던 거처럼 그 두 부류는 결국 각각 자기 길들로 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주로 순수 철학파들과 어울렸었는데 (?), 결국 신학을 하게 되었다. 그 때 그들은 그랬다. 철학이 무슨 신학의 전 단계냐고? 불만스럽게 여겼었다. 나야말로 그들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신학을 하면서 나의 보잘 것 없는 철학의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잊어먹고 도용하는 그런 사람이.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던가?!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정말이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신앙(기독교)인 것 같다. 그때 나는 어릴 때 가졌던 신앙에 대해 철저하게 회의하고 있었다. 니체를 읽으며 쾌감을 느끼고... 에띠엔느 질송을 읽으며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

한국의 문화재는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유산이다. 예술, 철학, 종교, 생활방식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예술 분야에서는 고려·조선 시대의 불교미술과 전통화려한 조각, 그림,Calligraphy 등이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주·관학, 선·불학 등이 있으며, 종교 분야에서는 불교와 전통적인 민족신앙 등이 있다. 생활방식은 전통 주거 형태인 한옥과 함께 찻집, 전통 음식, 의상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전에 소개한 예제를 살펴보자. 예제 1은 das Manoil 농장에서 경작 품목과 그에 따른 수익률을 계산하는 예제이다. 예제 2는 같은 농장에서 품목별 수익률과 품목별 수익률의 합계를 계산하는 예제이다. 예제 3은 같은 농장에서 품목별 수익률과 품목별 수익률의 합계를 계산하는 예제이다.

이 모든 여정에 나에게 힘을 주고 이해해주고 희생해 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영국 유학 직후였는데, 그 때 나는 영적 전쟁 직후였고 아직 신앙이 어린 탓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었다. 나의 남편은 나의 어두운 영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준 기도의 사람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현재의 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말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그 외에도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스승이 있었다. 우선 나의 40평생 내내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주시는 부친인 한철하 박사님이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없이 할 말이 많다. 대학 때 조요한, 최명관, 안병욱, 김기순, 이삼열 교수님들 모두 은사이신데 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제대로 인사 한번 못 드렸다. 이 죄송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하랴! 신학생 때는 정규남, 김기홍, Martin Cressey, Robert Knudsen, William Edgar, Sinclair Furgerson, William Barker 교수님들 등 고마우신 분들은 참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내가 만난 스승들을 헤아리다 보니 나도 후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이 글을 빌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 아울러 앞으로 내가 가르치거나 키운 제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존경할 만한 교수로 기억된다면 그 이상으로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으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경건과 학문을 겸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마도 일반 학계에서도 인격과 학문을 겸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고 그러한 인격을 통해 후학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참된 학자, 참된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삽막한 사회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오늘도 나는 두 손 모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의 연구를 시작한다. (56회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숭철동문

금속 조각을 끌어당기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그녀의 첫 번째 개인전인 *“금속 조각” 展*을 열었다. 그녀는 “금속 조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해 왔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주제에 맞는 금속 조각과 함께 전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적 경험을 확장시킨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작품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며, 그녀의 작품은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철학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제작된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작품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며, 그녀의 작품은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철학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작품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며, 그녀의 작품은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철학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2022년 1월 10일 개막한 *“금속 조각” 展*에서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

◆ 골국 황희(黃熙) ◆ 2022년 1월 10일 개막한 *“금속 조각” 展*에서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

이전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충됨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리오타르에 있어서 문장의 규칙배제성, 무규칙성이란 비규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문장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리오타르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장이란 상충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때 리오타르의 『상충성』은 그의 아방가르드 이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화용론으로 드러나게 된다.

리오타르의 『상충성』은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프랑크는 그의 『양해의 한계들』에서 하버마스편에서 리오타르를 비판하면서 이 양자간의 차이를 중화시키고 있다. 첫째 리오타르는 수행적 모순 performative Widespruch에 빠져 있으며, 둘째 리오타르는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프랑크는 하버마스에 있어서 합의란 리오타르가 생각하듯이 화용론의 절대적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차이지는 의견들에서 화용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프랑크의 견해는 리오타르 화용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리오타르는 담론적 상황에서 진위의 문제 이전의 언어행위의 정당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프랑크는 하버마스의 합의이론은 다툼과 수정의 가능성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부당tort하게 형성됐다는 증거이다. 또한 하버마스의 담론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술어의 올바른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형성에서 이미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으며, 리오타르의 Konsens 비판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있음을 프랑크는 잊고 있다. 전제형성에서 부당함을 피하기 위한, 즉 “올바른 사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전 담론은 무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되며, 결국 본래의 대화는 거행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도 수행적 모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프랑크의 비판은 더욱 약화된다.

리오타르의 아방가르드 이론은 상충성의 내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대미학의 관점에서 비판을 견디기 힘들다. 『포스트모던의 지식』에서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던한 상황을 “메타설화의 종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상충성』에서 “메타설화의 실종”은 개별 언어계임들간의 “다툼”을 해결할 “메타 규칙의 부재”, “메타 담론의 부재”로 결론지어진다. 이러한 윤곽에서 리오타르에게 있어서 ‘포스트모던’은 이러한 메타이론의 부재 내지는 거부이다. 그런데 이점을 그의 미학사상에, 즉 아방가르드 이론에 적용할 경우 외관상이나마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다.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던한 미술에서 아방가르드의 원칙이었던 ‘실험’을 강조하는 것은 미술실천에서 일종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메타담론을 부정하는 그의 철학적 입장에 상반되는 것이다. 더구나 미술실천에서 어떤 규범이 제시되고 있거나 특정한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술에서 얼마나

同門을 찾아서 10

도는주제 道는주제

이성에서 지혜로 — 한국 요가연수원 원장 이태영 동문(54회)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리: 김범수(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과정)
■ 박유리(학부 4학년)

오늘은 무척 가까운 곳을 찾아간다고 한다. 봉천동에 소재한 요가 연수원에 간다고 한다. 요가 연수원 원장으로 계신 이태영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요가원?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다. 요즘 다이어트니 대체 의학이니 하면서 요가가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내가 요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다. 단지 요가가 기이한 일이나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범수 선배와 나는 별다른 어려운 없이 요가원에 갈 수 있었다. 학교에서 요가원에 자주 나가고, 심지어는 중독 증상(이태영 선생님의 표현)을 보이고 있는 전요숙(98학번)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약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요가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동문 89학번 박정열 선배가 있었다. 아주 오랜 기간동안 요가원에서 수련한 모양이었다. 그 선배는 우리를 아주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셨다. 그 선배의 안내로 우리는 이태영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오자마자 우리에게 보이차를 주셨다. 그리고 아주 비싼 차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

선생님은 어제 과음을 하셨다는 얘기로 시작하셨다. 요가를 하시는 분과 술? 상관 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역시

철학과 술을 뗄 수 없는 관계인가보다.

사는 얘기

-간단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강의도 그렇고, 원고 쓰는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지. (상담 안내판을 가르치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요가수련원)에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상담 사람들과 만날 뿐 다른 날에는 전화도 안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있지. 그런데 강의 안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강의 청탁이 더 많이 들어오더군. 원고 청탁도 그렇고. 그래도 명상하고 수련하는 게 내 업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공부하고 명상하면서 지내.

-얼핏 듣기로는 집안 식구들도 명상이란 수련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뭐 그렇지. 하루 일과가 다른 집보다 일찍 시작되지. 집사람도 수행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고기 안 먹지. 성장기 아이들 때문에 생선은 가끔 먹어도. 얘들도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 전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지. 나도 수련원 나올 때는 아침 점심 도시락 가지고 오고.

알 수 없는 인도 철학

(이 일기에서 김기숙 선생을 다시 봄날 같은 날이다).

김기숙은 풍경에 흠뻑 빠졌다. 그의 저마다 품고자 하는 정신과 문학적 고민을 전부 풀어버렸던 듯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온갖 재미를 찾았던 것이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열정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점점 확장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예술가와 문학인으로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삶의 핵심이 되어버렸다.

노년의 김기숙은 예술가로 활동하는 그 자체를 살피면서 예술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예술은 예술로서의 조건과 예술의 외연을 넘어서는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체였다. 예술은 예술로서의 조건과 예술의 외연을 넘어서는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체였다.

김기숙은 예술가로 활동하는 그 자체를 살피면서 예술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예술은 예술로서의 조건과 예술의 외연을 넘어서는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체였다. 예술은 예술로서의 조건과 예술의 외연을 넘어서는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체였다.



김기숙 선생
김기숙 선생

○ 0577 김기숙 선생의 일기

김기숙 선생의 일기에는 그의 생활과 예술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함께 그의 예술관과 철학이 담겨 있다. 예술은 예술로서의 조건과 예술의 외연을 넘어서는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체였다.

○ 0578 김기숙 선생의 일기

(김기숙 선생의 일기)

김기숙 선생은 예술 활동과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일기로, 예술 활동과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일기로,

열 선배가 한 마디 거들었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신 거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다 보죠? 하하.)

#명상의 세계에서

(잠시 동안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갔다. 그런데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인도 철학 용어와 서양 철학에 관련된 얘기를 길게 하셨다. 그 부분은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었다. 인도 철학·용어가 워낙 어려워서.. ㅜㅜ)

-명상을 하면 어떤 것이 좋나요?

명상은 궁극적으로 해탈을 하기 위한 것이지. 기독교에서도 신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명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삼매 체험을 할 수 있지.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세상에서는 느끼는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왜 서양 철학에서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아타락시아, 결국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가장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야.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면...

명상이라는 말은 대상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meditation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촛불인지 촛불이 나인지 모르는 경지. 가 촛불을 켰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있고, 촛불이 있고, 촛불을 향한 나의 인식이 있지. 그런데 명상을 하면 세 가지가 사라지지. 먼저 촛불이 사라지고 촛불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결국 나도 사라지게 되지. 물론 단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바로 삼매라고 하지. 그리고 보면 명상이라는 말도 중국 사람들이 참 번역을 잘했어. 眞想. 우리는 생각을 하면 분명 밝다고 표현하

는데, 그것이 아니야.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어둡다 라는 의미로 명(冥)자를 썼어. 기가 막힌 번역이지.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쾌락을 생각해봐. 내가 아주 재미 있는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도 좋겠지. 영화를 보고 있는지 시간이 정신 없이 가지.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주 시간이 더디게 갈 것이라고.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은 나를 잊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어. 명상이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겠지. 모든 것에 초월한다... 그것을 신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심신의 안정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가 용어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제대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 나중에 범수 선배는 신비적이라는 말에 무척 집착했다고 말했다. 베르그송이나 스피노자에게서도 신비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얘기와 함께. 물론 종교적 황홀경을 체험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적인 것이라고요?

동양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는 이렇다고 봐. 물론 내가 이해한 바이니까 남들은 그렇게 얘기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양은 이성으로 철학을 하지만 동양은 지혜로 철학을 하지.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통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 모든 것이 삶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지. 데까르뜨가 명석하고 판명함을 쓴듯이 서양 철학은 설명하려고 하지. 그런데 동양 철학은 수련을 통해서

(*)

나. 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는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 활동은 학생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예술 활동은 학생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100 韓國 正確 #

한국의 고전적인 문학 작품들에서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장과 학문 등이다. 특히 '사랑'은 그야말로 모든 문학 작품의 핵심 주제로 여겨지며, 그 외에도 우정, 친구 사이의 친밀함, 그리고 학문적 성장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내용으로도 다룬다. 예컨대 '장생이'는 사랑과 우정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장생이와 그의 친구인 장수, 장수의 아내인 장화, 그리고 그들의 딸인 장연이 등이 등장하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또 다른 예로는 '장생이'의 동반자인 '장수'와 '장화'의 이야기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장생이'와 함께 등장하는 다른 주제로는 학문적 성장과 학문적 열정,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등이 있다.

국이야. 꾸밀리를 드는다. 그 뒤에 드는다. 그 뒤에 드는다. 그 뒤에 드는다. 그 뒤에 드는다.

동문회

I. 동문 소식

- ▶ 권명달 동문(37회·부회장) 지난 2월 하버드 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 ▶ 이일환(70회) · 박채훈(70회) 동문 세안프라자 웨딩홀에서 6월 1일 화족을 밝힌다.
- ▶ 윤동성 동문(72회·대학원 재학) 5월 11일 동안 교회에서 신부 이지원 양과 화족을 밝혔다.

II. 기타

- ▶ 故 조요한 명예교수의 유족(장남 조경진, 차남 조경덕)들이 5월 20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고인의 유지라면서 현금 1천 만원과 장서 2천 권을 대학에 기증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고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다 평생을 지내온 승실 대학에 기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숙연해 했다. 한편 전 총장의 유족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철학 강좌를 개최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고,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에 ‘怡耕문고’라고 명명돼 비치된다.

철학과

I. 교수 동정

- ▶ 김광명 교수(독일근현대 철학·미

학) 작년 12월 한국칸트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II. 학과 동정

- ▶ 3월 새학기에 2001년 입학한 역사·철학과군 학생들 중에서 32명이 철학과 2학년으로 배정되었다. 현재 철학과 재학생 수는 100여명이 된다.
- ▶ 철학과 학생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정기 총회를 열고 이주현 군(98학번)을 학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 철학과에서는 3월 29·30일 이틀동안 유명산 휴양림으로 전체 MT를 다녀왔다. 교수, 대학원생, 역사철학과군 1학년 샌입생을 포함하여 60여명이 참여하여 돈독한 정을 나누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 ▶ 대학원에서는 4월 8일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가 있었다.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는 **심의용** 씨(62회)가 “이천「易傳」에 나타난 사대부의 행위와 義理”를 발표하였다.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는 **윤동성** 씨(72회)가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에 있어서의 책임의 문제”를, **백두환** 씨(72회)가 “심성에 대한 물리주의의 설명의 한계”를 각각 발표하였다.

주소 업데이트

- ▶ 최지웅 동문(34회) 440 willow glen way #204 Sanjose CA 95125, Samuel Ji Woong Choi, 전화 408-978-8328

▶ 韓語字典

philosophyasant.soonghs11.ac.kr
e-mail:
tel: 820-0370 / fax: 824-4382
⑨ 156-743 · 韩國語科字典五号 1號刊
地點: 韓國語科字典五号
地圖: 01 今 古
2002년 6월 1일 講題
書名: 2002 (2002 版)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제작자를 표시합니다.
작자는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제작자는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II. 韓語字典 韓語字典

한국어 słownictwo koreańskie (Koreański słownik)
한국어 słownictwo koreańskie (Koreański słownik)

I.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 韓語字典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地圖 102호 603호
A1.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地圖 1호 693-1 101호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地圖 2호 22-98 202호, 02) 812-3014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韓語字典
地圖 2호 108-49
◀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韓語字典
地圖 705호 實地圖 011-212-0697
◀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545호 實地圖 011-205
◀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2호 448-8 2호
◀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60-79 201호
◀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1602호 實地圖 011-9022-8709
◀ 韓語字典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103호
(031-274-7972, 實地圖 011-787-7974)
104-1202호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486호
A1. 韓語字典
地圖 71호 1502호
A1. 韓語字典
地圖 01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34호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1호 150호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35호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71호 150호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01
▶ 韓語字典
A1. 韓語字典
地圖 1호 150호